동신여고 정구부 선수들이 20일 순천에서 열린 제29회 회장기 전국남녀정구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우승한 뒤 파이팅을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동신여고 제공〉

동신여고 전국 정구대회 ‘정상’

회장기 여고부, 안성여고A팀 꺾고 올 첫 대회 우승

광주 동신여고가 올 해 첫 전국대회인 제29회 회장기 전국남녀정구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동신여고는 20일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 단체전 결승에서 안성여고A팀을 3-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동신여고는 결승에서 안성여고를 맞아 첫번째 게임에서 임수민(1년)- 최정미(1년)조가 세트스코어 4-3으로 이겨 기세를 올렸다. 두번째 단식 게임에 나선 임수민은 아쉽게 1-3으로 패해 게임스코어 1-1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동신여고는 두번째 복식조로 나선 김진복(3년)-이아름(3년)조가 다시 안성여고 복식조를 4-3으로 꺾고 게임스코어 2-1로 앞서기 시작했다. 마지막 네번째 단식게임에 나선 김진복은 안성여고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셧아웃 시키고 대미를 장식했다.

동신여고는 준결승에서 경북 문경관광고를 3-1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으며 김진복과 임수민은 고비마다 뛰어난 활약으로 팀 우승을 견인했다. 특히 1학년 임수민은 빠른 포핸드스트로크가 뛰어나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재목으로 각광받았다.

동신여고 정구부는 지난 1980년에 2~3명의 선수로 창단,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1997년부터 7명의 엔트리를 갖추고 전국대회에 출전하며 실력을 쌓아왔다.

지난해 4월 제12회 장원배전국남녀 중·고 정구대회에서 우승한 동신여고는 올 첫 전국대회인 회장기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해 올 전국체전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남자일반부 광주 동구청은 이날 단체전 8강전에서 부산시체육회를 3-1로 꺾고 준결승에 올라 21일 오전 경기 이천시청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이날 광주 동구청은 첫번째 복식에서 서교원-허경진조가 부산시체육회 정영팔-최정민조를 4-1로 제압했고, 두번째 단식에서 임근영이 위휴환(부산시체육회)에게 1-3으로 패했다.

두번째 복식게임에 나선 정관석-임대현조는 최종민-위휴환조(부산시체육회)를 4-2로 꺾었고, 마지막 단식게임에서 허경진 선수가 최종민(부산시체육회)을 3-1로 누르고 게임스코어 3-1의 승리를 거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금 낮추면 그린피 5만원 이상 내린다”

전국 골프장 경영자협회, 정부에 세율 조정 건의

재산세 4%→2% 종부세 4%→1% 인하땐 경쟁력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20일“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인하하면 그만큼 그린피를 내리겠다”고 결의했다.

20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전국 213개 회원사 골프장 중 165개 회원사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우기정 회장은 “골프장 건설시 사업자 강제조항인 골프장 원형보전지(전체 부지의 20% 이상)에 대한 골프장 관련 세금이 과중해 2015년께에는 거의 모든 골프장이 매출액보다 세금이 많아진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세율조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 대표들은 “과중한 세율이 그린피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의 세율을 낮추면 회원사 골프장들은 인하되는 세금만큼 그린피를 조정해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비롯해 재산세를 4%에서 2%로, 종부세를 4%에서 1%로 인하하면 그린피를 5만원 이상 낮출 수 있어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그린피 경쟁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관광수지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동시에 고용효과 및 경제유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敗… 敗… 부상 병동 전남 시련의 박항서 “4월엔 희망”

고기구·송정현 등 부상자 속속 복귀… K리그·AFC 챔피언스리그 연패 탈출 기대

경기에 나서기만 하면 패배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부상병동 전남 드래곤즈를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지난 19일 밤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G조 감바 오사카와 경기에서 3-4로 역전패 해 또 다시 패장이 됐다.

하지만 박 감독은 “3월 상황은 어렵게 됐지만 이번 주부터 일부 선수들이 회복해 팀 훈련에 참가한다”며 “4월은 전력이 차츰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 감독은 올 시즌 K-리그 두 경기와 AFC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 등 올해 치른 네 경기에서 모두 패했지만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하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 감독은 “고기구와 송정현이 이번 주말부터 팀 훈련에 참가할 수 있고 곽태휘도 많이 나아졌다. 4월에는 팀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괜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상에서 회복한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치우도 지난 16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K-리그 경기에서 교체 선수로 뛴 데 이어 오사카 전에서는 선발 출전해 그라운드를 활발히 누비면서 박 감독의 근심도 조금 덜어졌다.

박항서 감독에게 3월은 주축 선수들의 잇단 부상과 K-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겹쳐 그야말로 시련의 시기였다.

2008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때 국가대표로 차출된 고기구가 부상을 안고 돌아와 지금까지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골 넣는 수비수 곽태휘는 지난 8일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 개막전에서 오른 발목을 다쳐 수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 브라질 출신 공격수 산드로와 미드필더 송정현은 지난 12일 멜버른 빅토리FC와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다쳐 재활중이다. 특히 산드로는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언제 복귀할 지도 불투명한 상태. 외국인 선수 슈바 역시 전지훈련때 부터 재활훈련 중이다.

주전들이 대거 빠진 전남은 2전 2패로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통과조차 어렵게 됐고 K-리그에서도 2연패로 하위권에 처져 있다.

박 감독은 하지만 “지난 해 경남FC 감독을 맡을 때도 시즌 초반 4연패를 당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힘든 상황이 됐지만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는 4월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박 감독이 지난 시즌 이끌었던 경남FC는 시즌 초반에는 부진을 겪다 후반에성적이 크게 나아지면서 전체 14개 팀 가운데 4위를 차지,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전국 대학배구 춘계대회

함평서 내달 5일 개막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현대캐피탈배 전국 대학배구 춘계대회’가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함평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전국 대학배구 4관왕인 인하대를 비롯해 한양대, 목포대, 부산대, 충남대, 여자부로 목포 과학대, 우석대, 한중대 등 3개 팀 등 모두 15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한다.

5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가는 이번 대회는 1부 대학 8개팀이 2개조로 나눠 조별리그 예선을 거쳐 4강 토너먼트로 결승전을 치르고, 2부 대학과 여자대학은 각각 풀리그로 우승팀을 가린다.

이번 대회는 SBS 스포츠채널을 통해 경기가 생중계되고 다음달 18일 개막되는 엑스포와 주요 관광지 등도 소개될 예정이어서 엑스포 관람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엑스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대회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맨유 박지성 “출전 모든 대회 우승 위해 노력”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석권에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박지성은 20일 맨유의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중 우승 욕심이 나는 대회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선호하는 건 없다. 참가하는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고 늘 그렇게 노력할 뿐”이라면서 “모두 다 우승하고 싶다”고 전했다.

맨유는 이날 볼턴 원더러스전 2-0승리로 22승4무4패(승점 70)를 기록해 2위 아스널(승점 67)을 따돌리고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렸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AS로마와 8강 대결이 예정돼 있다.

지난 14일 더비카운티와 경기에 선발출장해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내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 8점을 받았던 박지성은 이날 볼턴전에는 결장했다. 박지성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남북전(26일.중국 상하이) 참가를 위해 24일 상하이로 이동해 대표팀에 합류한다./연합뉴스

스포츠중계

21일 (금)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우리 : KIA〉(12 : 50·SBS스포츠), 〈LG : 한화〉(13 : 00), 〈롯데 : 두산〉(17 : 00·MBC ESPN)

▲07/08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미정 : 신한은행〉(16 : 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전자랜드 : LG〉(18 : 50·SBS스포츠·XPORTS)

▲2008 황금사자기 고교야구〈유신고 : 부산고〉(13 : 00·KBS N SPORTS)

▲2008 PGA 푸에르토 리코 오픈 1R (07 : 30·SBS골프)

22일 (토) ▲2008 WGC CA 챔피언십 2R 〈03 : 00·SBS골프〉